

정부 · 기관소식

농림수산물부

비위생적 도축장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실시

농림수산물부는 도축장 안전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도축장 132개소(소돼지 79개, 닭오리 53개)를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축장 위생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하고, 위생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12개 평가반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평가기간 : 소 돼지 도축장 7~9월,

닭오리 도축장 8~10월

* 평가반 :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2명,

소비자단체 1, 지자체 1 등 4명으로 구성

HACCP 운용수준 평가는 도축장 인프라, 위생관리 및 HACCP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HACCP 운용효과 검증에 위한 미생물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평

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도축장 시설기준 준수 및 위생적 관리여부, 영업자와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간('11년도 기준) 소 도축두수 85만두, 돼지 1,080만두, 닭 760백만수, 오리 86백만수의 도축에 위생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물부는 HACCP 운용수준 평가에 따른 도축장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거점도축장인 경우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브랜드에서 상등급 도축장 이용시 촉진되도록 우수축산물 브랜드 선정평가 시 도축장 평가결과를 반영(3점)한다.

축산농가 및 판매점에서 상등급 도축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우수도축장(상등급) 표시허용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하등급 도축장은 집중적인 위생점검 및 기술지도 등 차등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실질적인 HACCP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평가등급 공개, 최우수업체 포상, 상위업체 이용 활성화 홍보, 하위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도축장 안전위생 수준 향상과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세계식중독 검사 평가에서 신뢰성 인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실시한 2011년 국제숙련도평가에 참여하여 살모넬라균의 혈청형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100% 일치한 판정을 받았다.

살모넬라균에는 약 2,300여종의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하는데, 금번 평가에서 모든 시험균주에 대해 정확한 혈청형을 제시하였으며, 항생제감수성검사에서도 112항목에 대해 정확한 감수성 또는 내성 결과를 제시하였다.

※ WHO-EQAS (WHO-External Quality Assurance System)는 세계 식중독 감염 네트워크(Global Foodborne Infections Network)에 참여하는 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으로, 각 나라별로 인의, 동물, 식품 분야의 정부 및 민간 기관 등 약 90개국 180여개 실험실이 참여하고 있음.

검역검사본부는 2008년부터 살모넬라균 및 항생제감수성검사 분야에 대해 KOLAS ISO/IEC 17025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실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감사원 평가 자체감사활동 우수 기관 선정

35개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 선정, 감사원장 표창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감사원의 '2011년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 3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월 29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에서 공개한 심사결과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은 심사 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감사활동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했고, 업무의 적법성 확보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자체감사활동 평가회를 열어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청렴교육과 반부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R&D의 성과목표 달성과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연구비 부정행위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해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양호’에서 올해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의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축산과학원

여름철 고온기 축종별 사양관리

고온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환기와 신선한 물 공급에 신경써야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여름철 고온기 축종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가축 사육에 알맞은 온도는 15~25℃ 범위이며 이때는 온도변화가 증체나 사료이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7℃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가축의 혈류, 호흡수 증가 등으로 열 발산을 높이려는 생리기능이 촉진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여름철 높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기를 통해 열과 습기를 제거하고 먼지의 농도를 최소화한다.

또한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사료 섭취량 감소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사료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먹이고 신선한 물을 수시로 공급해준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양승학 연구사는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극심한 경우 폐사할 수도 있는 만큼 가축 사양관리에 더욱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도입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및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광고 실증제 등이다.

식품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할 예정이다.

※ 우수위생관리기준(Good Hygiene Practice) :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13) 20% → ('14) 50% → ('15) 100%까지 적용할 계획

| 정부 및 기관소식 |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 실시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시행된다.

또한 영·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 비스페놀A(BPA) :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폴리 아릴설폰(PASF) 제조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 물질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 ('12.6.기준) 19개 → ('12년) 22개

축산물품질평가원

실시간 축산물 도·소매가를 확인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축산업의 생산 유통소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유통정보 전문 포털사이트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를 7월2일 오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가 최근 전체 농업생산액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원 자체 정보와 산재되어 있는 축산관련 유통정보를 모아 포털사이트

를 개발하였다.

* 축산업 생산액 : ('00) 22.1%→ ('10) 40.2%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약칭 eKAPEPIA)에서는 ①축산유통, ②가격·통계, ③등급정보 365+, ④이력정보, ⑤식육·소비정보 등 총 5개의 콘텐츠로 구성하여 우리나라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축산유통 콘텐츠 : 축종·유형별 생산, 도축·가공, 유통·판매, 해외동향으로 구성

② 가격·통계 콘텐츠 :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유통단계(산지, 도매, 소비자)별 가격, 기간별 경락가격 등을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통한 설명을 추가

③ 등급정보 365+ 콘텐츠 : 품질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현장연구조사 보고서와 외부 보고서, 기고문, 외국의 축산 동향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④ 이력정보 콘텐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 소개 및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흐름도를 통한 설명으로 구성

⑤ 식육·소비정보 코너 : 고기에 대한 일반상식과 전국 한우·돼지고기 전문 맛집 소개, 블로그, 전문가 Q/A 등으로 구성하여 제공

맛집의 경우 국내산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며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에서 인증한 판매점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에서 추천한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등재

아울러 품질평가원은 축산유통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m.ekapepia.com)도 개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폰의 인터넷 검색창에서 m.eKAPEPIA.com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도매시장 경락가격 현황, 유통단계 가격, 축산·등급통계, 등급·이력조회 및 맛집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가 일반국민들에게 올바른 축산정보를 제공하고 축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동 서비스가 축산정책 및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켜 국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2012년 상반기 「성공적인 HACCP운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 원장 직무대행 김병은)은 6월 25일 기준원 8층 대회의실에서 '12년도 상반기 「성공적인 HACCP운용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HACCP지정 및 지정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주)미트뱅크 외 42개 업체에서 53명이 참석하였으며, 효율적인 HACCP 운용 방안 설명을 통해 기지정업체의 HACCP 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미지정업체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HACCP 적용의 조기유도를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 최근 개정된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소개하고 예방방법 및 재

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업체간의 정보 교류 및 HACCP 제도 발전을 위한 경인지역 식육가공업 HACCP 연구회[가칭 : 험사모(해썹을 사랑하는 모임)] 발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김병은 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하여 HACCP 적용업체의 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중국 대형유통매장에 상품설명회 개최
“대형유통업체, 수입벤더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농림수산물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한국식품의 중국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를 위해 7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2 베이징 대형유통업체 상품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2년 중국 베이징 한식 프로모션(韓國美食文化節) 행사'와 연계하여 르네상스 차오양 호텔에서 열렸다. 까르푸, RT-mart, 롯데마트 등 중국 내 유력 대형유통업체 11개 업체와 주요 수입벤더 14개 업체와의 사전매칭을 통하여 실질적인 상담을 유도하고, 서부내륙지역의 경소상과 유통매장과의 상담지원을 통해 취급지역 확대도 추진됐다.

| 정부 및 기관소식 |

한국에서는 CJ, 대상, 동원F&B,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과, 냉동식품, 오미자 와인, 조미김, 쌀 가공품 제조업체 중 유망기업 등 13개 업체가 함께 상담회에 참여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생우유를 수출하는 동원데어리푸드, 연세우유 등이 참석해 한국산 유제품 수출 확대를 추진했다.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상품제안설명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수입벤더가 원하는 상품을 미리 파악하여 유망한 신제품을 제안하는 행사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상품제안설명회를 통해 중국시장 대형유통업체에 한국식품 입점을 확대하여, 수출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기관 최초 「한국소비자원 기관 공로패」 수상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농업인들의 다양한 소비자 문제 해결 우수기관으로 선정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6월 28일(목) 소비자문제 전문기관이자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개원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소비자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초의 기관 공로패를 수상했다.

농협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6.12.13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농업인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농업인들은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있어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농협과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적극적 활동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문제 전문가가 전국 현지를 순회하며 강의 및 상담을 통하여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현장을 찾아가는 농협이동상담실”을 공동실시 하고 있다.

